"한국 혁신 정신. 아시아 에너지 전환 이끌 것"

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'빅스포 2025'서 기조연설

규제·보수적 금융 구조 등 걸림돌 지적 결핍을 강점으로…체계 갖춘 혁신 강조

"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기술과 산 업의 글로벌 리더로 이끈 혁신의 정신은 기후 변화와 기술 혁신이란 도전에 직면한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."

김용 전 세계은행총재는 5일 광주 김대 포) 2025'에서 기조 연사로 나서 글로벌 정책을 바꾸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에너 지 확대 등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.

빗대 에너지 전환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갖추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 을 설명했다.

김 전 총재는 "한 번에 한 환자씩 치료 로 경력을 시작했으나 아이티, 페루 등 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"며 "치료제 비용이 비싸 지원이 안된다는 WHO의 경직된 글로벌 보건 정책이 결핵 치료를 어렵게 했고, 의료 활동을 함께 하던 동료들과 이를 바꿔보려고 끊임없 이 노력했다"고 언급했다.

이어 "결국 WHO의 정책을 바꾸는 데 성공했고, 복제약의 가격을 90% 이상 낮 추며 전 세계 최빈국의 내성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혁신을 거뒀다"며 "바뀔 수 있 다는 확신이 명확하다면 강력한 기관조 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'BIXPO(빅스 차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. 에너 지 전환도 확신을 바탕으로 한 혁신이 필 요하다"고 덧붙였다

또 그는 에너지 전환의 혁신이 기술만으 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. 새로운 기계, 그는 의사로 활동하며 겪었던 경험에 더 빠른 알고리즘보다 시스템적인 체계를

김 전 총재는 "화석 연료에서 재생 에 너지로의 전환은 단순한 공학적 문제가 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의사 아니다. 인류가 시도하는 가장 복잡한 변혁 중 하나다"며 "많은 곳에서 재생 최빈국에서 결핵 치료 등 의료 활동을 하 에너지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원인은 느 리게 움직이는 규제, 보수적인 금융 구 조 등 시스템적인 문제가 원인이다"고 "새로운 파트너십, 더 투명한 프로세스

> 하는 것보다 정부, 투자자, 시민이 함께 였다. 일하는 방식을 재구상할 필요가 있다"며



김용 전 세계은행총재가 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'BIXPO(빅스포) 2025'에서 기조 연사로 나서 글로벌 정책을 바꾼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등 글로벌 에너지 전환 방안에 최기남 기자 bluesky@gwangnam.co.kr 대해 제언하고 있다.

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투명하게 공유해 이어 "더 나은 터빈이나 배터리를 설계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"고 덧붙

그는 세계은행 그룹에서 '그린본드 김 전 총재는 "녹색 채권을 발행했을 더관(유니콘·CES혁신상 수상 기업), 딥

(녹색 채권) '를 추진하며 겪었던 일화도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전환 방법으로 소 개하며,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설명

때 주류 투자자들이 주목할 것이라고 믿 테크 스타트업 특별관으로 운영된다. 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"며 "그러나 연기 금과 기관의 자본을 재생에너지로 유도 했고, 시장에서 저탄소 선택을 보상하도 록 COP21에서 탄소 가격 리더십 연합 (CPLC)을 출범시키며 금융의 혁신을 이 복합 기술을 함께 선보인다. 뤘다"고 말했다.

2025년 11월 6일 목요일

이어 "한국은 전쟁 후 불가능해 보였던 재건에 성공했다. 반도체, 조선, 디지털 분야의 선두가 되기까지 한국은 결핍을 강점으로 바꿨다"며 "누구나 안될 것이 라 여겼던 녹색 채권과 한국의 성공 바탕 에는 목적성이 뚜렷한 혁신이 있었고, 에 너지 전환에 가장 필요한 요소다"고 덧붙

아울러 "한국의 혁신 정신은 글로벌 전 문성과 목적 지향적인 파트너들과 연결 되는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다"며 "한국 이 아시아의 다리가 돼 이웃 국가들의 에 너지 수요를 연결하고 글로벌 자본을 지 역 프로젝트와 연결해 에너지 전환을 선 도할 수 있을 것이다"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국내 최대 규모 전력 • 에너지 산업 박람회 'BIXPO 2025'는 '에너지로 연결 하다(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) '란 주제로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.

자체, 대학 등이 신기술 전시에 참가하며 KEPCO관, 지역특화산업관, 글로벌 리

대기업관에는 LS그룹, 포스코, HD현 대일렉트릭, 효성중공업 등이 참여하며 중소기업 부스도 함께 구성돼 에너지산 업의 전 밸류체인과 AI·로봇·에너지 융

전시회장 내에 마련된 'BIXPO 광장'에 서는 참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 자유치,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성장 기회가 제공된다.

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41개 전 문 컨퍼런스도 진행된다.

6일에는 글로벌 에너지 전문 컨퍼런스 인 에너지 리더스 서밋이 열리며, 'KEPCO R&D 커퍼런스'에서는 한전의 R&D 비전과 차세대 전력망, AI 융합 기 술 등 5개의 주제발표가 이뤄진다.

발명기술혁신대전에서는 한전과 공공 기관 직원, 대학생이 발명한 총 78개의 우수 발명품이 전시된다.

공기업 최초로 개최되는 'TEDx KEPCO'는 'xSolution'이란 주제로 AI, 인문 등 6개 분야 전문가 강연을 통해 기 후위기, 인간관계, 각종 불균형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

아울러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 올해는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, 지 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상담회, 나주 혁 신도시 공기업과 지역 50개 유망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박람회도 진행된다.

이산하 기자 goback@gwangnam.co.kr

2025.

무안군 삼향읍

남악중앙공원 일원

11.14.(금)~**11.16.**(일)



광주신세계 직원이 플레이스팟 'DOD(디오디)' 매장에서 캠핑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랜턴을 선보이고 있다.

광주신세계, 캠핑 랜턴 출시…가을감성 물씬

캠핑 공간에 포인트가 되는 조명을 선보인 며 형태도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다. 다. 빨간 버섯 모양이 특징인 '키노코 우드

㈜광주신세계가 가을날씨에 캠핑을 즐 랜턴'은 나무 소재에 소프트 터치 조작 버 용 가능하다.

본관 8층 '루메나'의 'LED 캠핑랜턴 M 플레이스팟 'DOD(디오디)' 매장에서는 4 멀티플'은 3가지 라이트 모드로 선명하

방수와 방진 기능까지 갖춘 점이 특징

이다. 한옥의 지붕과 처마 형태를 현대적 으로 재해석한 '루메나 감성 THE CLASSIC'은 무선으로 최대 100시간 이

'발뮤다' 대표상품 '발뮤다 더 랜턴'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유리처럼 투명하 고 깨끗하면서 250배 이상의 내충격성을 갖춰 캠핑에 적합하다.

송태영 기자 sty1235@gwangnam.co.kr

무안군 **M5**፬ YOUNG DREAM 나의 꿈에 이루어지는 곳

전력설비 성능・안정성 가상현실서 검증

한전KPS, 디지털트윈 정비 기술 개발…빅스포서 소개

위험성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차세대 가상현실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.

(Power Hardware-in-the-Loop Sim-기술'을 개발하고 시연회를 마쳤다.

P-HILS는 한전KPS가 모두 독자적으 로 개발한 전력 관리 시스템(PMS・ Power Management System) 을 포함해 실시간 시뮬레이션 장치(RTSPH·Real-Time Simulator for PMS-HILS), 대용

한전KPS가 전력설비 정비 작업 현장의 SIM·Back-To-Back Simulation)를 결 합한 방식이다.

이 기술을 활용하면 설계 단계에서는 설 5일 한전KPS에 따르면 최근 'P-HILS 계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, 운영 단계 에서는 새로운 운영 전략이나 설비 변경 ulation)' 방식 기반의 '디지털트윈 정비 사항의 고려 사항을 시스템 구축 전·후 타 당성 분석과 검증이 가능하다.

모든 검증 과정은 가상으로 진행되며, 사고나 장애 상황을 설정하고 대응력을 확 할수 있다.

이미 운영 중인 설비에도 새로운 제어 량 전력을 만들어내는 증폭 장치(BTB- 알고리즘이나 시스템 구성 방식의 안정성

과 효율성을 사전에 검증한 후 실제 적용 할수있다.

특히 자체개발한 증폭 장치는 Back-To -Back 구조를 전력 증폭 장치에 랙 시스 템으로 적용,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했다.

현장 맞춤형 물리모델 기반 AI 재생에 너지 발전량 예측 기술(K-REGF·KPS's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orecasting device)도 선보였다. 기존의 기 상 예보식 발전량 예측 방식과 달리 실제 발전단지의 설비 정보를 추가로 반영했다 는 특징이 있다.

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 운영 알고리즘에 발전량 예측값을 적용하고 그 결괴를 검증 인하기 때문에 인적·물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RTSPH와 연계하는 환경도 구 축한 만큼 이를 통해 수소 생산 운영의 안 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.

이산하기자 goback@gwangnam.co.kr